

『源氏物語』와 谷崎潤一郎소설 비교

- 「宇治十帖」와 『鍵』, 『瘋癲老人日記』를 중심으로-

김 용 기* · 김 상 원**

目 次

1. 서론
 2. 본론
 - 2.1 등장인물간의 삼각관계
 - 2.2 네크로필리아
 3. 결론
-

1. 서 론

소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롯이며 그러한 플롯을 지탱해가는 것들 중 하나는 등장인물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소설 속에 이루어진 문자기호를 해독하는 행위로, 그로인해 독자 나름대로 각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의 결합체가 독자로 하여금 어떻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간의 갈등양상으로 빚어지는 플롯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것은 그 소설이 가지는 의의 중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선 그러한 등장인물간의 갈등양상, 그 중에서도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源氏物語』와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이하 ‘다니자키’

* 동국대학교, 교수, 일본근대문학

**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일본근대문학

라 칭함)의 소설을 비교고찰하려고 한다. 다니자키와 『源氏物語』와의 관련성은 이미 많은 선행논문으로 밝혀진 바 있다. 내용면에서는 『痴人の愛』, 『吉野葛』, 『芦刈』 등이, 문체나 표기방법에 있어서는 『盲目物語』, 『春琴抄』 등이 『源氏物語』의 영향을 받고 있음¹⁾은 그 좋은 예이다. 또한 다니자키 자신도 『饒舌録』(改造社, 1929년 10월)등의 수필에서 『源氏物語』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다니자키는 『饒舌録』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겐지모노가타리는 육체적 역량이 노골적으로 나타나있지는 않지만, 아름답고 애절한 일본풍의 정서가 풍부히 담겨있으며, 구성도 좋고 짜임새도 있어, 과연 일본문학 중에서 가장 구조적미관을 두루 갖춘 전무후무한 작품이다.

源氏物語は肉体的力量が露骨に現はれてゐないけれども、優婉哀切な日本流の情緒が豊富に盛り上げられてゐて、首尾もあり照応もあり、成る程我が国の文学中では最も構造的美觀を備へた空前絶後の作品であらう。

다니자키는 이처럼 『源氏物語』를 처음 현대어역하기 이전²⁾부터 『源氏物語』에 깊은 문학적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만큼 『源氏物語』는 그의 문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니자키의 『源氏物語』 수용이 소설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등장인물간의 갈등양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고찰해보려 한다. 연구범위는 『源氏物語』의 경우, 마지막 부분인 「宇治十帖」³⁾와 다니자키의 소설은 그가 만년에 쓴 『鍵』와 『瘋癲老人日記』로 한다. 그리고 『源氏物語』는 원전을 인용하지 않고 다니자키의 『新々訳源氏物語』를 인용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두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다니자키 소설연구에 있어

1) 池田和臣, 「谷崎潤一郎と源氏物語」, 国文学解釈と鑑賞, 2001년 6월, pp. 46~51

2) 다니자키는 일생동안 『源氏物語』를 세 번 현대어역하는데 그 첫 번째는 1939년부터 1941년에 걸쳐 「中央公論社」에서 간행된다.

3) 「宇治十帖」이란 『源氏物語』의 속편부분을 말한다. 『源氏物語』는 총 54帖으로 되어 있고 이는 다시 3부로 나뉜다. 1부는 1帖(桐壺)부터 33帖(藤裏葉)까지로 주인공 히카루 겐지(光源氏:이하 겐지라고 함)의 영화로운 삶을 그리고 있고 2부는 34帖(若菜上)부터 41帖(女)까지로 겐지의 만년의 우수에 찬 삶을 그리고 있다. 3부는 42帖(匂宮)부터 54첩(夢浮橋)까지를 일컫는데 3부에서는 1, 2부의 주인공이었던 겐지가 등장하지 않고 그의 다음 세대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특히 겐지의 아들인 가오루(薫)와 그의 라이벌이자 친구인 니오우노미야(匂宮)가 이야기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宇治十帖」은 이 3부중에서도 마지막 十帖만을 가리키는 말로 45첩(橋姫)부터 54첩(夢浮橋)까지를 말한다.

배제할 수 없는 키워드 중 하나인 <성도착>에 관한 것이다. <성도착>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기존의 다니자키 소설에서 다루어져 왔던 것들은 주로 페티시즘과 마조히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주목할만한 것은 『鍵』에서 또 다른 <성도착> 현상인 네크로필리아(死體愛)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크로필리아는 공교롭게도 「宇治十帖」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러한 네크로필리아를 중심으로 한 <성도착>현상이 『源氏物語』와 다니자키의 소설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연구범위는 『源氏物語』의 「宇治十帖」 부분과 다니자키 소설의 『鍵』로 한다. 이때에도 역시 『源氏物語』는 원전을 인용하지 않고 다니자키의 『新々訳源氏物語』를 인용하기로 한다.

2. 본론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본론에서는 첫 번째로 「宇治十帖」와 『鍵』, 『癡癲老人日記』에서의 등장인물들 간의 삼각관계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宇治十帖」와 『鍵』에서 보이는 네크로필리아에 대해서 고찰해보겠다.

2.1 등장인물간의 삼각관계

본장에서는 우선 「宇治十帖」의 두 주인공인 가오루(薫)와 니오우노미야(匂宮),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우지(宇治)의 여인들과의 관련양상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다니자키 소설 중 만년의 소설인 『鍵』와 『癡癲老人日記』에서, 주인공을 둘러싼 히로인과 제3의 인물간의 삼각관계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宇治十帖」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源氏物語』의 속편부분이다. 「宇治十帖」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 『源氏物語』의 3부 중에서도 마지막 10첩만을 일컫는다. 『源氏物語』 1, 2부가 겐지(源氏)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3부는 겐지가 타계한 이후 그의 자손들이 주인공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자손들이라고는 하나 가오루의 경우, 실제 아버지는 겐지가 아니라 가시와기(柏木)⁴⁾이며 니오우노미야도 겐지의 직계 자손이라

4) 겐지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도노추조(頭の中將)의 장남으로, 겐지의 아들인 유기리(夕霧)와 친구이다. 황녀인 온나산노미야(女三の宮)를 절실하게 부인으로 삼기 원했지만, 그녀는 결국 겐지의 정실

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3부는 『源氏物語』의 일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모노가타리(物語)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源氏物語』 3부는 「匂宮三帖」와 「宇治十帖」로 나뉘는데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宇治十帖」만을 다루기로 한다.

「宇治十帖」의 주인공은 전편까지의 주인공이 겐지 한 명에 국한 되었던 것에 반해, 가오루와 니오우노미야의 두 명의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宇治十帖」 전반부의 대략적인 플롯은 다음과 같다.

45첩인 「橋姫」에서 가오루는 불도를 배우기 위하여 겐지의 이복형제인 하치노미야(八の宮)⁵⁾의 집을 방문한다. 그때 처음으로 하치노미야의 두 딸인 오오이기미(大君)와 나카노기미(中の君)를 보게 된다. 두 자매의 아름다운 미모에 마음을 뺏긴 가오루는 그중에서도 언니인 오오이기미에게 마음을 둔다. 그리고 가오루는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니오우노미야에게 들려준다. 호색적인 성격의 니오우노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가오루가 자신과 두 자매 사이에 니오우노미야를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가오루가 진심으로 오오이기미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니오우노미야의 호색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가오루가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니오우노미야에게 알린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한편 오오이기미에게 마음이 있던 가오루와는 달리, 오오이기미는 가오루를 동생인 나카노기미와 연결시키려 한다.⁶⁾ 이를 안 가오루는 나카노기미를 니오우노미야와 결혼시키고 자신은 오오이기미와 결혼하려는 계획을 짠다. 그러나 47첩인 「総角」에서 오오이기미가 병으로 죽게 된다. 그리고 이후 니오우노미야는 나카노기미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리고 갈 결심을 하게 된다.

부인으로 들어간다. 이후 츠나곤(中納言)에 승진해서 온나산노미야(女三の宮)의 언니인 오치바노미야(落葉の宮)와 결혼했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가 갑자기 발병해서, 겐지가 그녀에게만 붙어 있는 틈을 타서, 시녀를 매수해서 온나산노미야(女三の宮)와 관계를 가지고 만다. 그로 인해 가오루가 태어나게 된다.

5) 기리쓰보(桐壺)천황의 제 8황자로, 겐지의 배다른 남동생. 오오이기미(大君)와 나카노기미(中の君)의 아버지이다.

6) 오오이기미의 이러한 행동을 간다 다츠미(神田龍身)는 마조히즘적 성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본론2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가오루의 니오우노미야에 대한 대사와 자신의 심경, 그리고 나카노기미에 대한 대사를 통해 가오루의 심리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早蕨」에서의 니오우노미야에 대한 가오루의 말이다.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지 않으시면 왠지 저의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옛사람의 유품으로는 저 분 이외에 아무도 없으므로,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더라도 제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それは嬉しいことでございますね。そうでもなすっていただきませんでは、何だか私の^{おちど}落度になるような気がしていたのでございました。忘れられない昔の人の形見としては、あのお方よりほかには誰もないので、私としまして、何もそういう意味ではなしに、万事のお世話をして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ございますが、」)⁷⁾

가오루는 이제 니오우노미야의 부인이 된 나카노기미를 자신이 후견임을 내세우며 둘 사이의 관계에 끼어들려 한다. 그리고 다음은 나카노기미에 대한 가오루의 심경이 나타난 부분이다.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 두어야 했을 것을 하며, 점점 억울함이 더해졌다. (自分こそこのお人を宮がなさるようになって上げるべきなのであったと、だんだん^{くや}悔しさが募るのでしたが、)⁸⁾

애초에 나카노기미와 결혼 할 생각이 없던 가오루가 정작 나카노기미가 니오우노미야의 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자 뒤늦게 후회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다음은 가오루가 나카노기미에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부분이다.

「머지않아 저도 이번에 가시게 되는 저택의 근처로 곧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은 한밤중에도 왕래하는 것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언제든지 마음 편히 상담하여 주시면 제가 살아있는 한은 무슨 일이건 당신을 위해 진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いずれ私も、今度お渡りになりますあたりに近い所へ、今しばらくたちましてから引き移って参りますので、『親しい同士は夜中暁でも』などと、世俗にも申すことでございますか

7) 谷崎潤一郎全集・30, 中央公論社, pp. 153~154

8) 전게서, p. 154

ら、どういう折にでもお心やすく御相談なすって下さいましたら、世にながらえております限りは、いろいろと承りも申し上げもして過したいと存じますが、」⁹⁾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가오루의 심리상태를 정리해보면, 오오이기미의 동생인 나카노기미에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가오루였지만 이제 니오우노미야의 여자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가오루는 나카노기미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니오우노미야를 질투하게 된다. 그리고 가오루는 나카노기미를 포기하지 못하고 후견인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나카노기미를 늘 곁에 두려고 한다.

한편 가오루가 나카노기미를 찾아가는 횃수가 늘자, 결국 니오우노미야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 다음은 「宿木」에서 나카노기미가 가오루를 자주 만나게 됨을 알게 된 후의 니오우노미야의 심경을 나타낸 부분이다.

문득 그 사람(가오루)의 잔향이 대단히 질게 옷에 배 있는 것이 심상치 않았다. 세상에 흔히 있는 향을 찼 것과는 달리, 누구의 향인지 확실히 분간 할 수 있는 것은 니오우노미야가 향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으로, 니오우노미야가 그 향을 수상하게 여겨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나카노미야는 마음에 찢리는 것이 있어 아무 말도 못하고 당혹스러워 했다. 역시 그랬구나. 꼭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오루가 이 사람을 이대로 보아 넘기지 않을 줄 알았다. 니오우노미야는 이런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중략)…… 더욱이, 가오루의 풍채도 마음이 있는 여자라면 분명 유혹될 것이 틀림없는데, 어찌 여자 편에서 강경히 거절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잘 어울리는 사이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분하고 질투심이 일었다.

(ふと、かのお人のおん移り香の、たいそう深くおん衣にしみつ^そいていますが、世の常^この香^かの香^たに薫^かきしめたようなものとは違^{ちが}って、それとはっきり匂^{にお}って来^きますのを、その道^{みち}にはすぐれたお方^{あや}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ら、誤^{あや}しくお咎^{とが}めになりまして、「どうしたことです」とお尋^{たず}ねになりますと、もとより覚えのあることですから、言い訳^{わけ}のしようがなく、当惑^{あや}して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さればこそ、きっとこんなことが起^おこるであろう、かの中納言^{ちゆうなごん}の君^{きみ}が、よもやこの人のことを何とも思^{おも}わないはずがないとは、とうから氣^きがついていたのであったと、急に胸騒^{むねさわ}ぎがなさるのでした。……(中略)…… それに、かの人^{ひと}の様子も、心ある女^めならきっと惹^ひきつけられそうに思^{おも}えますので、どうして手強^{てつよ}く撥^はねつけることなどができよう、ことに似合^{にあ}いの間柄^{まがら}であ

9) 전계서, p. 158

るからには、互いに思い合っているのであろう、などとお思いになりますと、やるせなく腹立たしく妬ましくなります。)10)

가오루와 나카노키미가 자신 몰래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된 니오우노미야는 처음에는 이렇듯 질투심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그러한 질투심이 나카노키미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사랑으로 변해간다. 가오루가 나카노키미와의 관계에서 니오우노미야를 필요로 하듯이 니오우노미야 역시 나카노키미에 대한 사랑의 기폭제를 가오루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니자키 소설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간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다니자키의 소설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의 소설의 특징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다니자키의 소설이 그의 관서(關西)지방으로의 이주11)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다니자키의 소설을 구분하는 데 있어 구분 시점에 따라 2기, 3기, 혹은 4기까지 나눌 수 있으나 관서지방으로의 이주는 그의 소설을 구분하는 데 큰 분수령으로 작용한다. 다니자키가 관서지방으로 이주하기 전의 소설이 주로 서양숭배사상을 테마로 하고 있었다면, 이주 후의 그의 소설은 고전적인 것과 일본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고전적이고 일본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다니자키의 후기의 소설들 중에서도 만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鍵』와 『癡癡老人日記』를 중심으로 등장인물들 간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鍵』는 주인공인 <나>와 그의 부인인 이쿠코(郁子)의 1월 1일부터 6월 11일 까지의 일기로 되어있는 독특한 형식의 소설이다. 즉 화자가 두 명인 소설로써 소설의 주인공 <나>의 죽음이후 <나>의 죽음에 관련된 비밀이 아내의 일기로 인해 밝혀진다. 그리고 <나>의 일기와 아내의 일기를 구분하기 위해 <나>의 일기는 가타가나로, 아내의 일기는 히라가나로 쓰고 있다.

『鍵』는 주인공 <나>와 아내 이쿠코의性に 대한 고백이다. 일기의 형태라고는 하지만 서로에게 보이기 위해 썼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아내의 일기에서 제 3의 인물인 기무라(木村)라는 청년과 아내의 애정행각을 알게 되고 질투를 느낀다. 그러나 그러한 질투는 오히려 아내에 대한

10) 전계서, pp. 223~227

11) 관동대지진이 있던 1923년에 다니자키는 거주지를 관서지방으로 옮긴다.

왕성한 성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아는 아내는 남편에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거짓 일기를 쓰게 된다. 이처럼 두 사람의 일기에서는 기무라라는 제 3의 인물이 등장한다. 기무라는 〈나〉와 아내의 딸 도시코(敏子)의 남자친구이다. 다음은 〈나〉의 1월 13일 일기의 일부분이다.

아니, 그것보다도 나 자신은 어쩔 셈인가. 무슨 생각으로 오늘밤도 기무라를 머무르게 한 것일까. 이런 심리는 나로서도 기묘한 일이다. 요전 7일 밤에 나는 이미 기무라에 대해 희미한 질투(희미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를 느꼈는데, —— 아니 그렇지 않다. 그것은 작년 말부터였다. —— 그 반대로 나는 그러한 질투심을 남몰래 즐겨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일까. 원래 나는 질투를 느끼면 그 방면에 충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질투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필요하기도 하고 쾌감이기도 하다.

(イヤソナトヨリモ、僕自身ハドンナツモリナノダラウ。ドンナツモリデ今夜モ木村ヲ引キ留メタノダラウ。此ノ心理ハ我ナガラ奇妙ダ。先日、七日ノ晩ニ僕ハ既ニ木村ニ対シ淡イ嫉妬(淡クモナカツタカモ知レナイ)ヲ感ジツ、アツタに、——イヤサウデハナイ、ソレハ去年ノ暮アタリダツタ。——ソノ半面、僕ハソノ嫉妬ヲ密カニ享樂シツ、アツタ、ト云ヘナイダロウ。元來僕ハ嫉妬ヲ感ジルトアノ方ノ衝動が起ルノdeal。ダカラ嫉妬ハ或ル意味ニ於イテ必要デモアリ快感デモアル。)12)

이처럼 〈나〉는 아내와의 사이에 기무라를 끌어들이려 한다. 그것은 아내와의 원만한 性관계를 위하여 질투라는 자극제를 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나〉의 자신과 아내 사이에 기무라를 개입시키려는 행동은 조금씩 노골적으로 변해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의 나체사진을 기무라에게 현상하게끔 한다. 〈나〉의 이러한 행동에서 〈나〉는 질투와 淫慾의 경계를 오가며 자신의 아내에 대한 性慾을 극대화시키려 한다. 다음은 3월 19일의 〈나〉의 일기의 일부분이다.

내 멋대로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일까 하며 여러 가지 경우를 상상하며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한없이 왕성한 음욕이 끓어오른다.

(自分デ勝手ニ、コレハカウ云フ譯ナノカ、イヤサウデハナクテカウナノカト、サマザマナ場合ヲ想像シテ嫉妬ヤ憤怒ニ驅ラレテキルト、實際モナク旺盛ナ淫慾ガ發酵シテ来ル。)13)

12) 谷崎潤一郎全集・17, 中央公論社, 1985년, pp. 287~288

13) 전게서, p. 328

다음은 『瘋癲老人日記』에서 주인공과 등장인물간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瘋癲老人日記』는 1961년 11월부터 1962년 5월까지 「중앙공론」에 연재된다. 이때의 다니자키의 나이는 75~76세였다. 『鍵』가 주인공과 그의 아내 일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라면 『瘋癲老人日記』는 77세의 주인공인 우츠키 도쿠스케(卯木督助)의 일기와 그가 심장발작으로 사망한 후의 주변인물들의 수기의 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그런데 우츠키 도쿠스케의 일기는 모두 가타가나로 쓰인 것이 특징으로 『鍵』의 주인공 <나>의 일기도 가타가나로 쓰인 것을 생각해보면 『瘋癲老人日記』는 『鍵』의 주인공 <나>의 20여년 후의 일기인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한다.

『瘋癲老人日記』는 性的으로 무능력자가 돼버린 77세 노인의 일기이다. 육체적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지만 性的인 욕망은 버릴 수 없다. 『瘋癲老人日記』의 주인공의 일기는 6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어지는데 6월 19일의 일기의 일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찌할 자격도 실력도 없지만, 안심하고 미인 곁에 있을 수 있다. 나에게서 실력이 없는 대신에 미녀를 미남에게 꼬드겨 가정에 분란을 일으켜, 그걸 즐기는 것은 가능하다.

その

(ドウスルト云ウ資格モ実力モナイケレドモ、安心シテ美人ノ傍ニ寄ルコトハ出来ル。自分ニハ実力ガナイ代リ、美女ヲ美男ニ嫉ケテ、家庭ニ紛紜ヲ起サセテ、ソレヲ楽シムコトハ出来ル。)14)

육체적인 性이 불가능해진 77세의 노인이지만 언제나 미인 곁에 있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미남 미녀를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여 가정에 분란을 일으켜 그것을 즐기려 한다.

이상으로 「宇治十帖」와 『鍵』, 『瘋癲老人日記』의 주인공과 등장인물간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宇治十帖」에서는 두 주인공 가오루와 니오우노미야가 나카노기미를 사이에 둔 삼각관계에서 서로간의 질투심으로 인해 더욱더 나카노기미에게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鍵』에서도 주인공 <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기무라라는 제 3의 인물을 끌어들이므로 인해 더 원만한 아내와의 性관계를 추구하고 있었다. 『瘋癲老人日記』에서는 性的인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다른 남자와 여자

14) 谷崎潤一郎全集 · 19, 中央公論社, p.18

사이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가오루가 이제는 니오우노미야의 여자가 된 나카노기미에게 후견인임을 이유로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심리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2.2 네크로필리아

네크로필리아란 성적 도착증의 하나이다. 국어대사전¹⁵⁾에 의하면 <성적 도착증이란 색정도착증이라고도 하며 이상한 자극에 의해서만 색정이 일어나는 일. 학대(虐待)음란증·동성애증(同姓愛症)같은 것> 이라고 나와 있다. 또한 『두산세계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성도착은 크게 성애의 대상에 의한 것과 성행위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성애의 대상에 의한 성도착에는 동성애 뿐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애(Pedophilia), 늙은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애,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체애(Necrophilia)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성행위에 관한 성도착으로는 사디즘(Sadism)과 마조히즘(Masochism)을 비롯하여 노출증·절시증·페티시즘(Fetishism)등 여러 가지라고 한다.

이러한 성적 도착증과 관련하여서 마조히즘과 페티시즘은 다니자키 소설의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는데 『鍵』에서는 변종된 페티시즘이라 할 수 있는 네크로필리아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네크로필리아 현상이 「宇治十帖」에서도 발견된다. 그렇다면 우선 「宇治十帖」에서는 그러한 네크로필리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본론 1장에서 「宇治十帖」가 『源氏物語』의 3부에 해당되지만 「宇治十帖」 그 자체만으로도 『源氏物語』와는 별개인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그것은 단순히 등장인물들이 전편과는 다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몇 가지를 더 예로 들자면, 첫째로 「宇治十帖」의 배경이 되는 곳이 우지라는 지방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편의 『源氏物語』에서의 배경이 왕과 귀족들의 영화로운 삶의 무대였던 궁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설정이다. 또한 그것과 관련지어 우지라는 곳을 가오루가 찾아가는 이유 또한 이전의 『源氏物語』에서의 귀족들의 부귀와 영화, 권력에 대한 욕망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가오루가 우지를 찾아가는 이유는 권력을 포기하고 우지로 떠난 하치노미야를 만나 불도를 배우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宇治十帖」가 가지는 특징은 많으나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15)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2002년, p. 1953

간다 다츠미(神田龍身)가 지적하는 「宇治十帖」의 性的인 측면이다. 간다 다츠미의 「宇治十帖」의 性에 관련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이 속편이 모노가타리(物語)다운 화려함은 없을지 몰라도, 정편의 방법론과 세계관을 전면 부정한 대단히 야심찬 시도가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첫 번째는 「性的 쾌락」 그 자체의 미분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가오루와 니오우노미야, 오오이기미와 나카노기미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이성애와 동성애의 경계를 오가는, 性的결합을 전제하지 않는 도착을 추구하고 있다.

(私にはこの続篇が物語めいた派手さはないかもしれないが、正篇の方法論や世界観を全面否定してなされた、すぐれて野心的な試みであったのでないかと思われるのである。一つには「性的快樂」それ自体の微分化を試みている点があげられる。とくに薫と匂宮、大君と中の君の物語にあつては、異性愛と同姓愛との境界域を疑い、性的結合を前提しない倒錯のなんたるかを追究している。)16)

즉, 간다 다츠미가 말하려고 하는 「宇治十帖」에서의 性은 『源氏物語』 1, 2부에서 겐지가 벌인 일련의 애정행각과는 전면적으로 틀린 도착적인 性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한 예로 또, 오오이기미의 마조히즘적 성향도 예로 들고 있다. 이것은 본론 1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오오이기미의 결혼하려 하지 않는 행동 즉, 자신을 좋아하는 가오루를 동생인 나카노기미에게 양보하려는 피학적인 행동을 간다 다츠미는 마조히즘으로 보고 있는 것17)이다.

그가 주장하는 「宇治十帖」의 倒錯적인 性에서, 필자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네크로필리아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總角」에서 가오루가 병상에 누워 있는 오오이기미를 보며 생각하는 장면이다.

생각해보면 어찌된 운명이기에 이렇게 사모하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고통만 안은 채 헤어져야 한단 말인가. 조금이라도 미모나 행실에 결점을 보였더라면 가슴속의 슬픔도 덜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오오이기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아름답고 가련하며 안타깝게만 보였다. 팔은 아주 가늘게 여위어 그림자만 남은 것 같이 약해졌지만, 피부 빛깔은 변함없이 희고 아름답고 나긋나긋했다. 희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침구를 옆으로 밀어놓

16) 神田竜身, 『源氏物語=性の迷宮へ』, 講談社, 2001년 7월, p. 11

17) 전계서, pp. 71~73

고 있어서 알맹이 없는 인형을 재워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머리털은 술이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베개너머로 젖혀진 머리칼은 반들반들 윤이 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여인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슬펐다.

(思えばどういふ宿縁で、こんなにまでお慕い申し上げながら、数々の辛い思いをしてお別れ申さなければならぬのか、もし少しでも御器量などに欠点を見せて下さったら、恋しさを覚ますよすがにしようと、じっと見守るのですけれども、かえってますます美しく、傷々しく、もったいなくばかり見えるのです。腕なども非常に細くなって、影のように衰えていながら、肌の色合いは変わらず白く綺麗に、なよなよとして、白いおん衣の柔かなのを召して、夜具を押し除けておいでになりますのが、中身のない雛人形を臥かしたような感じで、お髪はうっとりいほど多過ぎるというのでもなく打ち靡いて、枕から落ちていますが、つやつやと見事で結構なのにつけても、これだけのお方がどうおなりになるというのか、これがこの世のものでなくなるのかと思うと、類なく惜しいのです。)18)

「宇治十帖」에서 가오루가 이처럼 오오이기미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장면은 이 부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다시 말하면 이 순간이 가오루에게 있어 가장 에로틱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장면에서 가오루는 시체처럼 말라버린 오오이기미의 몸을 보며 사랑을 느낀다. 이러한 가오루의 네크로필리아적 성향은 오오이기미가 죽고 난 후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오오이기미가 죽고 난 후 오오이기미를 바라보며 느끼는 가오루의 심정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꿈은 아닌가하고 생각하여 등불을 밝혀 가까이 들이대고 보았다. 소매로 가린 얼굴은 단지 편안히 잠들어 있는 것 같이 변한 것이라곤 없었고 예쁜 모습으로 누워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별레의 허물처럼이라도 하여 이곳에 간직할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임종의 절차를 밟기 위해 머리를 쓸어올리자 향기가 물씬 풍겼다. 그것은 살아 있을 때 그대로의 그립고 좋은 향이었다.

(何ほ何でも、まさかこんなことがあるはずはない、夢ではないのかとお思いなされて、御燈火を近々と寄せて灯を掻き立てて御覧になりますと、お袖で隠していらっしゃる顔も、ただすやすやと眠っておいでになるようで、変わったところもおありにならず、綺麗なお姿で横に

18) 谷崎潤一郎全集・30, 中央公論社, 1985년, pp. 133~134

なっていぬらがっしゃいますので、このまま虫の脱け殻ぬのようにしてでも、ここにお置き申すことがで
 きるならばと、うろたえた考かえもお起おりになります。臨終しんの作法さくなどをして、お髪かみを搔かき上げま
 すと、さたと薰物たえの香かおが匂におって来きますのが、ありし日ひそのままの匂においななのに、まあ何なにというななつ
 かしい妙たえな薰かおりりでああららう、)19)

시체처럼 말라버린 오오이기미를 보며 사랑을 느끼던 가오루는 이제는 죽어버린 오오이기미를 박제를 해서라도 곁에 두고 싶어 한다. 가오루의 오오이기미에 대한 네크로필리아적 경향의 최절정인 부분이다.

두 번째로 다니자키의 소설 『鍵』에서 보이는 네크로필리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鍵』은 1956년 1월 「中央公論」에 연재된다. 그러나 2월부터는 창간호 「週刊新潮」에 『鴨東綺譚』을 연재함으로 인해 『鍵』의 연재가 잠시 중단된다. 『鴨東綺譚』의 연재가 끝나고, 같은 해 5월부터는 다시 「中央公論」에 『鍵』의 연재가 재개되어 12월까지 계속된다.

『鍵』의 연재가 재개되던 때에, 「週刊朝日」은 『鍵』에 대한 〈외설과 문학의 경계〉라는 내용의 특집을 다룬다. 이 기사로 인해 『鍵』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鍵』은 그만큼 노골적인 부부간의 성묘사와 페티시즘을 비롯한 성도착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鍵』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인공인 대학교수 〈나〉와 그의 부인 이쿠코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부간의 성행위의 패턴이다.

주인공 〈나〉는 아내인 이쿠코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성적으로 쇠락해가는 56세의 대학교수이고, 이에 반해 이쿠코는 45세였으나 아직도 요염한 몸매와 아름다운 피부를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다. 그런데 주인공 〈나〉가 1월 29일 일기에서 브랜드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아내의 알몸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듯이 두 사람간의 성관계에서 〈나〉는 이전까지 아내의 전신 나체를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나는 우선 한 점의 더러움도 없는 놀라운 알몸을 눈앞에 두고 잠시 동안은 완전히 당황하여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아내의 나체를 이처럼 전신상의 형태로 본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僕ハ先ヅソノ一点の汚レモナイ素晴ラシイ裸体ヲ眼ノ前ニシタキニ暫クハ全ク度ヲ失ツ

19) 전계서, pp. 135~136

テ呆然トサセラレテキタ。ナゼト云ツト、僕ハ自分ノ裸体ス様ナ全身像ノ形ニ於テ見タノハ始メテダッタカラダ。(20)

이 일을 계기로 <나> 는 아내가 브랜드를 마시고 정신을 잃어 혼수상태에 빠질 때마다 아내의 몸을 탐닉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에게 약까지 먹이게 된다.

그리고 루미날 한 알과 카드로녹스 반 알을 난로 위에 놓여있던 주전자의 뜨거운 물에 찬 물을 타서 미지근하게 만들어 먹였다.
(ソシテルミナル一錠トカドロノックス半錠トヲ、ストーブノ上ニ懸かツテキタ湯沸シノ湯ニ水ヲ割リ微溫湯ヲ作ツテ飲マシタ。(21))

이렇듯 아내의 전신나체를 처음 본 이후로, 주인공 <나> 는 아내를 브랜드로든 약으로든 혼수상태로 만들어 관계를 가진다. 아무리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인과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야만 나체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브랜드와 약을 매개로 하여 혼수상태로 만드는 주인공 <나> 의 심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나> 의 행동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宇治十帖」의 가오루의 오오이기미에 대한 네크로필리아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나> 의 네크로필리아적인 행동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으로 다음은 <나> 가 혼수상태에 빠진 아내를 전신나체로 만들어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장면이다.

폴라로이드는 이미 이틀 밤 사용했다. 사진은 완전한 앞면과 정면과 뒤쪽, 각 부분의 상세한 곳,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지를 왜곡시키거나 활 모양으로 구부리거나 쪽 뻗게 하여 가장 유혹적인 각도에서 찍었다. 내가 이런 것을 찍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첫째는 찍는다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자고 있는 여체를 마음대로 움직여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어 본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기 때문이다.

(ポーラロイドハ既ニ二晩用シタ。寫眞ハ全裸体ノ正面ト背面、各部分ノ詳細圖、イロイロナ形狀ニ四肢ヲ歪曲サセ彎屈サセ、折シタリ伸バシタリシテ最モ蠱惑的ナル角度カラ撮ツタ。僕ガコレヲ撮ツタ目的ハ何ニアレカト云ウト、第一ハ撮ルル自体ニ興味ヲ感ジタカラ

20) 谷崎潤一郎全集・17, 中央公論社, pp. 292~293

21) 전계서, p. 295

だ。寝テキル女体ヲ自由ニ動カシテ種々ナ姿態ヲ作ツテミルコトニ愉悅ヲ覺エタカラだ。)22)

〈자고 있는 여체를 마음대로 움직여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어 본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주인공의 행동은 의식이 있는, 즉 깨어 있는 아내와의 정상적인 性행위에 의해 性的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의식이 없는 여체에서 性的만족을 느끼는 다분히 네크로필리아의 최절정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으로 「宇治十帖」와 『鍵』에서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네크로필리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源氏物語』의 마지막 부분인 「宇治十帖」와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만년의 소설 두 편, 『鍵』와 『瘋癲老人日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 고찰해 보았다. 첫 번째는 등장인물간의 삼각관계 패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네크로필리아적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宇治十帖」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두 명 등장한다. 가오루와 니오우노미야가 그들이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두 주인공은 서로를 자신의 히로인과의 관계에 끼어 들이고 있다. 특히 가오루의 경우는 그러한 경향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난다. 니오우노미야의 존재 없이는 여성에게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한다는 인상을 갖게 할 정도로 가오루는 자신과 히로인의 관계에 있어 니오우노미야를 끌어들인다. 본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宇治十帖」에서 나중에 등장하는 우키후네(浮舟)와의 관계에서도 두 주인공은 서로간의 질투심 때문에 우키후네를 차지하려는 듯이 보인다.

『鍵』에서는 주인공이 자신과 아내와의 사이에 기무라라는 제삼의 인물을 끌어들여 일부러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 목적은 아내와의 사랑에 필요한 더 깊은 성적 쾌감을 위해서이다.

『瘋癲老人日記』의 주인공은 자기 스스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노인이

22) 전계서, p. 310

다. 즉 무능력자에 불과했지만 미남 미녀, 즉 능력 있는 남자와 자신은 가질 수 없는 여인을 부추김으로 인해 대리만족을 얻는다. 이는 「早蕨」에서의 가오루의 심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 혼자서는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없던 가오루가 니오우노미야를 끌어들이었듯이 『鍵』와 『癡癲老人日記』의 주인공들은 제삼자를 일부러 끌어들이므로써, 즉 인위적인 삼각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더 나은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살펴본 네크로필리아적 경향에 대해서는 우선 「宇治十帖」에서 주인공 가오루의 시체처럼 말라버린 오오이기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죽고 난 후의 오오이기미를 박제처럼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심리에서 가오루의 네크로필리아적 성향을 발견 할 수 있었다.

『鍵』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인공 <나> 가 아내를 혼수상태에 빠뜨리기 위해 브랜디와 약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혼수상태에 빠진 아내에게서 평상시에는 느낄 수 없던 性的 흥분을 보이는 주인공을 볼 수 있었다. 이 역시 「宇治十帖」에서 가오루가 보여준 네크로필리아적 성향과 동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니자키소설에 있어서 이러한 인위적인 삼각관계와 네크로필리아적 요소는 그의 초기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설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등장인물간의 갈등양상과 네크로필리아적 요소가 특히 만년의 소설인 『鍵』와 『癡癲老人日記』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의 초기문학의 특징 중 하나였던 서양적인 것에 대한 동경이 그의 만년에 이르러서는 고전, 특히 『源氏物語』에 대한, 혹은 일본적인 것에 대한 그의 회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参考文献】

- 谷崎潤一郎全集 · 17, 中央公論社, 1985년, pp.273~404
- 谷崎潤一郎全集 · 19, 中央公論社, 1985년, pp.3~174
- 谷崎潤一郎全集 · 29, 中央公論社, 1985년, pp.435~561
- 谷崎潤一郎全集 · 30, 中央公論社, 1985년, pp.45~169
- 細江光 『谷崎潤一郎 深層のレトリック』, 和泉書院, 2004년, pp.363~379
- 安田孝, 『谷崎潤一郎の小説』, 翰林書房, 1994, pp.155~175
- 神田竜身, 『源氏物語=性の迷宮へ』, 講談社, 2001년 7월, p.p11~73
- 伊吹和子, 『われよりほかに』, 講談社, 1994년 2월, pp.89~387
-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2002년, p.1953
- 池田和臣, 「谷崎潤一郎と源氏物語」, 国文学解釈と鑑賞, 2001년 6월, pp.46~51
- 大島真木, 「谷崎潤一郎の初期の創作方法」, 東京女子大学論集, 1973년 3월, pp.1~34

要 旨

本稿では『源氏物語』の「宇治十帖」の部分と谷崎潤一郎の末年小説である『鍵』と『癡癲老人日記』を二つの視角で比較考察してみた。谷崎小説の『源氏物語』との関連性は今まで少なくない研究が日本と国内で行われてきたし、谷崎自身も随筆などで『源氏物語』に関する愛情を示している。例えば谷崎の『痴人の愛』、『吉野葛』、『芦刈』は『源氏物語』のプロットを求めているし、文体と表現方式についても『盲目物語』と『春琴抄』などは『源氏物語』を連想させるに十分であるのがそれである。

しかしこの論文では谷崎小説の『源氏物語』受容を今までの研究とは違う観点から考えてみた。まず、「宇治十帖」と『鍵』、『癡癲老人日記』に出て来る主人公と登場人物との関係、あるいは主人公をめぐる周辺人物との三角関係の分析がその一番目である。

第二番目は、〈ネクロフィリア〉からの考察である。今まで谷崎小説の性倒錯的傾向は〈マゾヒズム〉とか〈フェティシズム〉として明らかにされて来た。ところが、性倒錯の一つである〈ネクロフィリア〉的傾向は研究されて来なかった。しかし『鍵』ではその〈ネクロフィリア〉的傾向が見られる。そして奇しくも「宇治十帖」でも〈ネクロフィリア〉的傾向が発見される。従って、ここではその〈ネクロフィリア〉を中心に『鍵』と「宇治十帖」を比較してみた。

この二つの観点で『源氏物語』の「宇治十帖」と『鍵』、『癡癲老人日記』を比較してみた結果、やはり谷崎小説は『源氏物語』からたくさんの部分に影響を受けているのが分った。そして谷崎の『源氏物語』受容は彼の関西地方への移住後が大きいのも分った。

キーワード：谷崎潤一郎、源氏物語、宇治十帖、鍵、癡癲老人日記、三角関係、ネクロフィリア

투 고 : 2006. 11. 30
1차 심사 : 2006. 12. 9
2차 심사 : 2006. 12. 30

住 所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교수회관 221

電 話 : 02-2260-3172

e-mail : yongkik2001@hanmail.net, seoultoronto@hanmail.net